

주제강연 2



양성평등 사회를 향한 생활 환경

김 태 현

(성신여대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교수)

양성 평등 사회를 향한 생활 환경

김 태 현 (성신여대 가족문화 소비자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현재 우리사회는 산업사회로부터 후기 산업사회 또는 지식·정보사회로 이행하는 구조적인 변화의 과정에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21세기를 흔히 감성(Feeling), 가상(Fiction), 여성성(Female)이 중시되는 3F시대, 그리고 시간측면에서는 휴식(Rest)이 중요하고 생활 측면에서는 풍요(Riches)가, 의식과 정신적 측면에서는 성숙함(Ripeness)이 추구되는 3R의 시대라고 한다(조은 편, 1996). 양성평등사회 구현의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케 한다. 왜냐하면 지식·정보사회는 산업사회의 표상이었던 강인한 육체적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세함, 치밀성, 그리고 유연성 등 일반적으로 여성의 특성으로 분류되는 특성들이 요구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남성의 특성과 여성의 특성이 다 함께 필요로 하게 되고, 동등한 가치로 인정받는 사회가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양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1차적으로 몸을 담고 있는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으로 UN이 1994년을 세계가족의 해로 제정하면서 UN이 중심방향의 하나로 설정한 주제가 바로 동반자적 가족(partnership families)이다. 동반자적 가족의 개념을 살펴보면, 이 용어가 평등한 가족과 동의어로서, 남성위주의 위계질서에 기초를 둔 억압적·권위적 가족에 반대되는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여성학자 Kimball은 평등한 부부들의 관계상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평등하게 살고 있다고 추천되어진 150여쌍의 부부들을 심층탐색한 바 있다. 그 결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부부들의 공통된 특징은 권리, 책임, 의무를 공유하며, 서로 존중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통하여 높은 친밀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도 평등한 사회, 평등한 가정이 중요한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고 특히 2003년도의 10대 국정과제 중에는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과 ‘국민 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이 들어 있다. 이는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양성 평등하게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 가족 구성원간의 평등한 관계를 보장하여 이를 통해 국민통합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서는 인간 개개인이 실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체감하는 삶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일차적으로 요구 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양성평등한 삶에 영향을 주는 양성평등·불평등의 현황과 양성평등 사회의 저해요인을 밝혀 보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지향해야 할 생활 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자들은 평등하게 남녀가 더불어 사는 구체적인 생활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2. 양성평등을 어떻게 정의 할 것인가?

양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생활 환경을 논의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양성평등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하는 가? 이 물음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다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남녀간에는 성차이를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보다 본질적 요소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고 출발하는 형식이다. 즉 남성성과 여성성을 인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이 아닌 단지 우연적인 차이로 보면서 양성평등을 인간 평등의 의미로 해석하는 방식이다. 또 하나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차이를 인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본질적인 차이를 이루는 것으로 보는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즉 양성은 다르지만 어떤 면에 비추어 예컨대 인간 사회의 유지 발전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여성성과 남성성은 등가의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방식이다. 이 중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양성 평등인지를 밝히기 위해 사용될 논의의 방식도 달라질 것이며, 무엇을 양성평등이라고 볼 것인지도 달라질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전자를 택하고자 한다. 즉 양성평등은 남녀간의 성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인간적 권리를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UN이 제시한 동반자적 가족, 평등한 가족이 이 정의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협동적 구조, 평등한 권리와 권력의 사용, 성역할 개념의 융통성, 함께 하는 가족활동, 가사 일의 공평한 분배, 경제적 책임의 공유, 자녀양육의 공동 책임, 공동 의사결정,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개방성'을 포함하는 것이 양성평등한 것으로 정의 한다.¹⁾

3. 양성평등, 불평등의 현황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바 남녀평등 실현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정과 직장 영역에서

1) 영어로는 gender equality로 한다 성(sex)의 개념이 인간이 태어남과 동시에 주어진 각각의 생물학적인 성차, 남자인가 혹은 여자인가 하는 차이의 지표인 반면에, 젠더(gender)는 사회적·문화적으로 형성되고 구성된 성을 의미함. 따라서 젠더가 뜻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우연히 신체적으로 다를지라도 사회적으로 동일한 성으로 키워진다면 동일한 성을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김태현, 2002)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정영역에서의 남녀평가 수준은 평균 62.5점, 직장영역은 54.6점으로 나타났다(함인희, 한정자, 2001) 남녀 평등 실현 수준을 80점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양성평등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미시적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양성평등의 긍정적 요인 : 남녀 교육 수준의 동일한 수준

1995년을 기준으로 20대 남성과 여성의 평균교육년수는 동일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9~19세 사이의 연령에서는 오히려 여성의 평균교육년수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에도 여성의 평균교육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지속되어 2011년에는 여성과 남성은 거의 동등한 교육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성별 연령대별 평균 교육년수(단위:년)

년도	구분	평균	6~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1970	전체	5.74	5.33	8.32	7.15	4.83	1.98
	남성	6.86	5.47	8.81	8.65	6.42	3.06
	여성	4.72	5.21	7.48	5.64	3.36	1.09
1975	전체	6.62	6.16	8.83	8.12	6.26	2.74
	남성	7.61	6.26	9.25	9.33	7.90	4.02
	여성	5.70	6.08	8.41	6.88	4.75	1.72
1980	전체	7.61	6.53	9.88	9.17	7.52	4.16
	남성	8.67	6.60	10.33	10.19	9.01	5.03
	여성	6.63	6.10	9.44	8.10	5.95	2.25
1985	전체	8.58	6.71	10.96	10.12	8.52	4.55
	남성	9.66	6.71	11.34	10.93	9.88	6.49
	여성	7.58	6.71	10.61	9.28	7.14	3.08
1990	전체	9.54	7.74	12.03	11.09	9.52	5.53
	남성	10.55	7.70	12.26	11.78	10.64	7.56
	여성	8.58	7.79	11.81	10.37	8.35	3.92
1995	전체	10.25	6.97	12.70	12.13	10.51	6.46
	남성	11.18	6.74	12.70	12.69	11.39	8.52
	여성	9.37	7.22	12.70	11.56	9.58	4.81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9.

전통적으로 여성의 평균교육수준은 남성에 비해 열위에 있었으나, 최근에 올수록 여성과 남성간의 평균교육 수준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층의 평균교육수준은 남녀간의 격차가 거의 소멸하였음을 볼 수 있다(<표 1> 참조). 따라서 남녀가 똑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환경이 우리사회가 양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2) 남녀간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불평등

그러나 이와 같이 남녀의 평균교육수준이 유사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특히 이러한 격차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 경우보다 대졸 이상인 고학력 경우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성별, 학력별 경제활동주이

구분	남성				여성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	대졸이상
1985	61.1	77.1	89.3	93.5	39.5	42.1	60.8	46.3
1990	63.2	80.0	93.4	93.2	45.6	47.5	66.1	53.1
1991	63.7	80.5	94.4	93.7	45.1	48.6	66.0	55.3
1992	64.0	79.9	94.8	94.3	45.0	48.5	65.2	53.8
1993	63.6	80.0	94.1	93.8	44.6	48.5	63.5	54.9
1994	63.5	81.0	94.3	92.8	44.8	49.4	63.0	56.8
1995	62.3	81.2	94.2	93.9	44.6	50.2	63.5	57.9
1996	61.2	80.9	93.4	93.4	44.2	50.9	65.6	59.6
1997	60.5	81.0	94.6	91.8	44.4	52.0	68.1	61.0
1998	58.4	80.0	93.3	90.6	42.4	48.4	65.0	56.7
1999	57.8	79.2	93.0	88.3	42.9	48.7	63.9	56.6

자료 : 통계청(해당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1999년 현재 대졸이상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8.3%에 달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56.6%에 불과하며, 전문대졸의 경우에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3.0%에 달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63.9%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OECD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터키나 멕시코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1998년을 기준으로 OECD국가의 평균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58.7%에 이르나 한국의 경우 50.3%에 불과하다(<표 3> 참조). 특히 OECD국가의 대졸여성의 평균경제활동참가율은 83%에 이르나 한국의 경우에는 56%수준에 불과

하여 선진국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남성의 경우에는 OECD국가의 평균경제활동참가율이 93% 수준이며, 한국남성의 경우에는 평균수준인 91%를 기록하고 있음).

〈표 3〉 OECD회원국의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단위 : %)

국가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OECD 전체 ¹⁾	69.8	58.7	81.2	6.8	7.4	6.3
덴마크	79.3	75.0	83.5	5.1	6.4	3.9
벨기에	63.2	53.8	72.5	9.4	11.7	7.6
네덜란드	72.9	62.9	82.8	4.3	5.5	3.5
핀란드	73.2	69.7	76.6	11.5	12.1	10.9
스웨덴 ²⁾	78.1	75.5	80.7	8.4	8.0	8.8
노르웨이 ²⁾	80.8	75.9	85.5	3.2	3.2	3.3
아이슬란드 ²⁾	84.5	80.9	87.9	2.7	3.3	2.3
프랑스	67.4	60.8	74.1	11.9	13.9	10.3
독일	70.1	60.9	79.2	8.6	8.7	8.5
스위스	82.3	74.2	90.1	3.7	4.3	3.2
오스트리아	71.3	62.5	80.2	5.5	5.6	5.4
영국 ²⁾	75.9	67.8	83.9	6.2	5.3	6.9
아일랜드	65.0	52.1	77.8	7.9	7.5	8.2
체코	72.2	64.0	80.3	6.4	8.2	5.0
룩셈부르크	61.9	47.6	76.0	2.8	4.2	1.9
헝가리	59.8	50.8	69.2	7.6	6.9	8.1
폴란드	66.1	59.7	72.8	10.9	12.6	9.5
포르투갈	70.2	61.9	79.0	4.9	6.0	4.0
스페인 ²⁾	63.1	48.7	77.7	18.8	26.7	13.7
그리스	62.4	48.2	77.2	11.9	17.8	8.1
이탈리아	57.8	43.9	72.0	12.2	16.4	9.5
터키	54.0	30.0	78.8	6.6	6.7	6.6
호주	73.0	63.9	82.1	7.9	7.3	8.4
뉴질랜드	75.2	67.1	83.5	7.6	7.4	7.7
일본	72.6	59.8	58.3	4.2	4.2	4.3
한국	64.0	50.3	77.9	7.1	5.8	7.9
멕시코	63.2	41.5	87.1	3.0	3.6	2.6
캐나다	75.4	69.0	81.8	8.4	8.2	8.6
미국 ²⁾	77.4	70.7	84.2	4.5	4.7	4.5

주 : 1) 15-65세 인구에 대한 경제활동참가율

2) 16-64세 인구에 대한 경제활동참가율

3) 표에 언급된 OECD 국가의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을 말함.

출처 :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1997-1998, Part III

3) 남녀간의 전문직종 참여의 불평등

총여성취업자 중에서 전문, 기술공 및 준전문가와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비중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1999년 기준으로 아직도 13.0%에 불과하다. 특히 1998년을 기준으로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비중은 미국의 경우 13.9%에 달하며, 싱가포르는 6.3%, 독일은 3.6% 수준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0.3% 수준이다.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비중도 한국의 경우에는 12.7%를 차지하고 있어서 미국의 21.2%, 싱가포르의 27.3%, 독일의 37.6%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며, 일본의 14.0%보다 낮은 수준이다. 고위직의 비중이 적음에 반하며, 서비스판매직 34.9%, 기능원 및 단순노무자 24.3% 등 비교적 단순하위직종이 종사하는 비중이 59.2%에 달하고 있다.

〈표 4〉 여성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단위:천명, %)

구분	총여성취업자(A)	전문기술직(B)	행정관리직(C)	(B+C)/A(%)
1982	5,622	206	5	3.8
1983	5,686	231	4	4.1
1984	5,535	258	6	4.8
1985	5,833	309	8	5.4
1986	6,165	345	8	5.7
1987	6,613	380	7	5.9
1988	6,771	415	8	6.2
1989	7,152	486	11	6.9
1990	7,376	555	11	7.7
1991	7,561	624	12	8.4
1992	7,669	717	12	9.5
구분	총여성취업자(A)	전문·기술공 및 준전문가(B)	입법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C)	(B+C)/A (%)
1993	7,774	824	32	11.0
1994	8,043	814	25	10.4
1995	8,256	899	23	11.2
1996	8,472	970	25	11.7
1997	8,686	1 013	25	12.0
1998	8,084	1 026	27	13.0
1999	8,303	1 055	22	13.0

주 : 1993년이후는 신직업분류에 의한 것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5〉 여성 직종별 취업의 국제비교 (1998, 단위:%)

구 분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림어업직	기능원 및 단순노무자
한 국	0.3	12.7	14.1	34.9	13.7	24.3
일 본	0.8	14.0	29.6	26.9	5.8	23.0
미 국	13.9	21.2	23.8	30.6	1.1	9.4
싱가포르	6.3	27.3	27.7	13.2	0.0	25.4
독 일	3.6	37.6	20.5	20.0	1.6	16.6

자료: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99).

이와 같이 여성노동이 주변부에 머물고 있음에 따라 남성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근속확률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불안정한 고용구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남녀간의 빈곤율의 차이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빈곤율이 매우 높다.

※ 빈곤의 정의 : OECD의 가구균등화지수로 조정된 가구소득이 중간소득(median income)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가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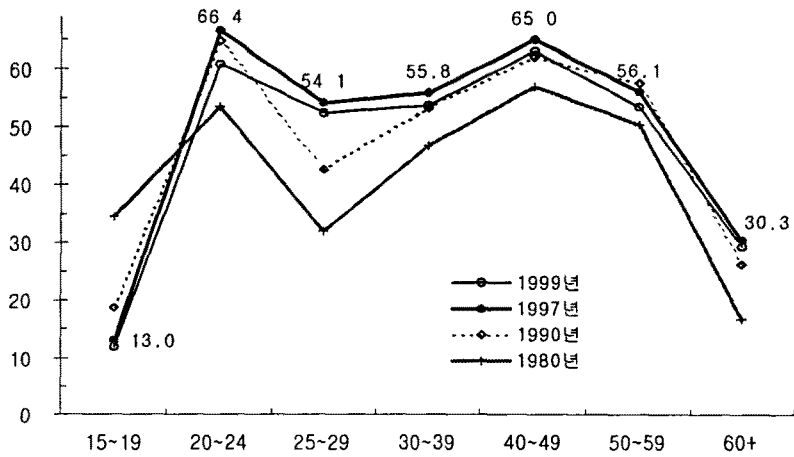
〈표 6〉 가구주 성별 빈곤율 비중(단위:%)

구분	빈곤가구의 비중(빈곤율)				3회 모두 빈곤가구가 아님	전체
	1998년	1999년	2000년	3회모두 빈곤		
남성	18.3	17.0	17.3	5.7	67.5	85.7
여성	41.5	41.6	44.3	23.0	39.5	41.3

자료: 금재호, 김승택(2001)

5) 남녀간의 경제활동 지속성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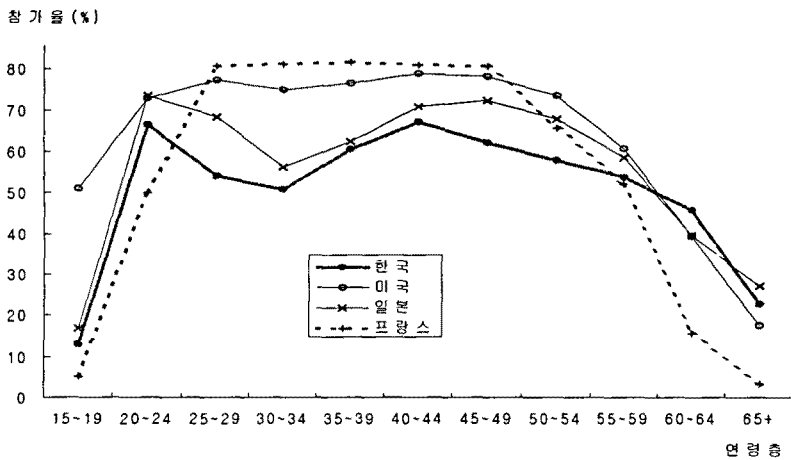
여성은 남성과 달리 단절된 경제활동 특성을 보이고 있는 데 여성의 경우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형태가 남성의 역U자형의 경우와는 달리 M자형을 나타내고 있어서 여성의 경제활동의 단절 현상이 나타난다(〈그림 1〉 참조). 이러한 현상은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와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주: 교육부(2000)에서 재인용

<그림 1>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



자료: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99).

주: 교육부(2000)에서 재인용

<그림 2> 연령대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국제비교

다른 현상이다. M자형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곡선은 최근에 을수록 단절현상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단절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15~1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9년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0년의 34%에서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중등·고등교육의 대중화와 보편화에 따라 이 연령층의 청소년이 교육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고 있다.

정규학교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24세 연령층의 경우 60.8%로 경제활동참가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1980년의 53.5%와 비교할 때 7%p 상승한 것으로 중등·고등교육을 통하여 축적된 인적자본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생애주기에서 초혼을 이루고 초산을 경험하게 되는 25~29세와 육아시기인 30~3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54%로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는 혼인과 출산 및 육아가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데에 상당한 장애를 유발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혼여부와 자녀의 수 및 자녀의 연령구조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금재호(2000)의 분석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생애취업기간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남성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의 잦은 이직은 자기능력의 극대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과 경력개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직장에서 축적할 수 있는 기업 특수적 인적자본마저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6) 남녀간 고급인력 활용의 차이

여성박사학위소지자들이 취업상황이 남성의 경우보다 열등한 상황에서 진미석 외(2000)의 박사학위 소지자 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성차별이 상존하고 있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현재 박사학위소지자들이 정규직에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여자박사들의 경우 성차별이 중요한 취업장애라고 반응하고 있는 데 비해, 남자박사들은 장애요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표 7> 여성박사학위소지자가 정규직에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성별 인식 비교 (단위: 5점 척도 평균)

구 분	여자	남자	전체	t-값	자유도	유의확률
전공분야 취업처 부족	4.5	4.5	4.5	0.886	446	.376
실력부족	2.1	2.2	2.2	-0.352	432	.725
운이 없어서	2.7	2.7	2.7	0.061	430	.951
가사와 육아부담	1.9	2.0	1.9	-0.876	414	.382
원하는 직장을 기다림	2.1	2.4	2.3	-2.471	426	.014
나이가 많아서	2.4	2.3	2.4	0.122	431	.903
취업노력부족	2.5	2.3	2.4	1.952	433	.052
취업정보로부터의 차단	2.6	2.4	2.5	2.675	431	.008
학연지연 등 불공정한 임용	4.1	3.8	3.9	2.293	433	.022
좁은 인간관계	3.2	2.7	2.9	3.508	433	.000
성차별	3.9	1.6	2.5	25.029	427	.000

자료: 진미석 외(2000), 학문분야별 고급인적자원 수급전망연구, 교육부

1980년대 이후 여성박사학위소지자는 급증하였으나 이들의 활용실태는 상대적으로 저조함. 1980~84년까지 여성박사의 비율은 국내의 경우 7.0%, 국외의 경우 12.1%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2000년에는 동 비율이 각각 18.8%와 18.2%로 급증하였다.

〈표 8〉 연도별 박사학위소지자의 배출현황

구 분	남		여		계	여성박사비율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전체
1980-1984 연평균배출	730.2	227.6	57.2	30.6	1046	7.0	12.1	8.2
1985-1989 연평균배출	1650.6	472.8	209.0	70.0	2402	11.1	15.0	13.1
1990-1994 연평균배출	2784.4	1053.4	455.8	180.4	4474	14.0	17.5	14.1
1995-2000 연평균배출	4062.7	1146.8	953.8	251	6414	18.8	18.2	18.7
1980-2000년배출총량	9228	2901	1676	532	14336	12.7	15.7	13.5

자료: 진미석 외(2000) 여성고급인적자원의 활용실태와 개선방안, 교육부

여성박사학위소지자의 비중은 급증하였으나 이러한 고급여성인력의 활용은 저조하다. 진미석 외(2000)의 전국의 21개 대학 대상의 1998~2000년도 박사취득자 취업실태를 보면, 1998년도 박사취득자 가운데 2000년 10월 현재까지 신규로 노동시장에 입직하는 여성 박사가운데 37.7%만이 정규직에 취업한 반면, 남자박사의 경우 67.8%가 정규직에 취업하고 있다. 박사학위소지자 가운데 정규직에 취업하지 못한 미취업율은 99년을 기준으로 여성이 66.0%, 남성이 35.1%의 비율을 보여서 여성이 약 2배 가량 높은 미취업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4. 양성평등 사회의 저해 요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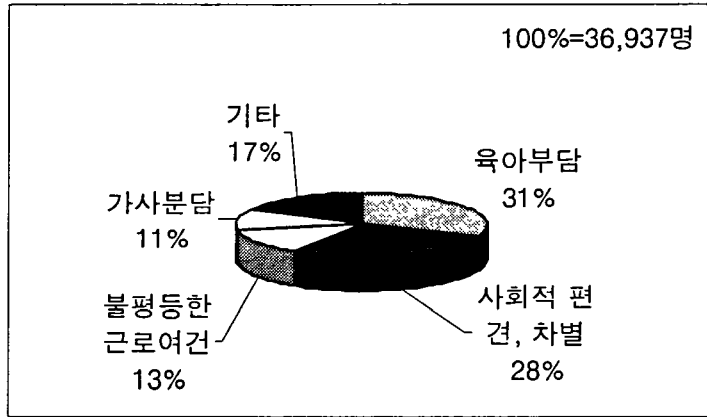
1)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많은 경우에 여성은 본인이 지닌 능력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역할이 상당 부분 결정되어 왔고, 또한 차별적 대우를 받아왔음으로 여성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자질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부여된 여성으로서의 '귀족적 지위'가 언제나 강한 사회적 편견으로 작용하여 왔다.

2) 육아 부담

맞벌이부부의 증가, 핵가족화 현상의 심화, 근무형태의 다양화 등 가족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

라 가정내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여성이 생각하는 가장 커다란 취업장애 요인은 육아부담으로 나타났다.



자료: <우먼 코리아 보고서 : 프로젝트 1090>

<그림 3> 여성이 생각하는 취업장애요인

장애요인의 비중은 육아부담(31%), 사회적 편견 및 차별(28%), 불평등한 근로여건(13%), 가사분담(11%) 순서이다. 육아의 사회적 부담은 결국 사회간접자본 투자라는 점을 인식할 단계에 이르렀다.

맞벌이 부부의 영유아 자녀 보육방식으로는 '보육시설 이용'과 '가족 관계망 활용'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보육방식은 한국적 가족주의의 특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존 보육시설이 맞벌이 부부의 보육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대변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대상 아동 100만명 중 64만명 만이 보육혜택을 받고 있는데 3세 이하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임금, 양성과정, 근로조건 등이 유아교사의 기준에 비해 낮아서 체계적인 보육프로그램의 상대적으로 빈곤한 형편이어서 불안정하다. 국가지원이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어서 중산층 가정은 혜택을 받지 못하며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육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영유아 자녀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에서 '교육내용의 충실'과 '집과 가까워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남으로써 현재의 보육시설의 수준과 시설 수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육시설의 이용시간을 직장 출퇴근시간에 맞도록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증가하는 노인 부양 책임의 여성화

우리나라의 노령인구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7.4%에 달하고있으며 노령인구의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67.8명으로 여성노인의 비율이 높은 데 이들의 부양책임을 거의 여성이 지고 있다.

4) 성차별적 관행, 제도적 문제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정비 미진 및 실효성 미비로 지속적으로 여성이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5. 나아가는 말 : 지향해야 할 생활 환경

위에서 우리사회에서 양성평등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거시적·미시적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생활 환경이 양성평등함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가족과 일에서 양성평등의 획득

여성주의 관점에서 보면, 가족은 노동과는 분리된 사생활 장소로, 가족보호논리가 가족의 성 억압을 은폐하고, 기존의 성별분업구조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여성주의자들은 가족을 모든 가족구성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곳 또는 통합성에 기반을 둔 관계로 보는 견해에 대해 비판한다(박충선 외, 1999; 이박혜경, 1999). 즉 현재의 가족제도가 여성들을 성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억압하는 굴레라고 보는데,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관계를 '사적인 영역'으로 규정지으면서 여성의 가사노동은 평가절하되었고, 여성은 공적 영역과 분리되어 사적인 영역에 포함시키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주의 관점은 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한다. 한부모가족, 독신가족, 별거가족 등을 비정상적으로 보지 않으며, 단지 형태가 다른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가족 내 성별 노동분업을 보다 평등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특히 맞벌이가족에서의 가사노동의 분담은 필수적인 것으로 본다. 또한 가족을 자연발생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사회적 단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여성주의자들은 가족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형태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가족은 자연스럽고 생물학적이며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통적 시각은 여성을 가족 내로 제한시키고 남성의 지배하

에 두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난하였다. 게다가 가족공동체에서의 생활도 남성과 여성이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으므로, 가족이 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도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작용한다고 본다. 즉 여성과 남성이 유사한 가족생활을 경험한다는 가정에 반대하고 있다. 여성주의는 전형적 가족이라는 개념에 도전하고 있으며, 정상 가족만의 획일적 형태나 개념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계급, 문화, 이성적 편견과 여성의 억압을 가져오는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한다.

가족생활 중에서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평등한 부부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여성주의 이론은 부부의 성관계가 정치적인 성격을 지녀서 부부의 사랑을 왜곡한다고 본다(문소정, 1995). 즉 부부 간의 이성애적 성관계는 성기 중심적인 성관계, 아내에 대한 지배와 소유를 확인 하거나 여성을 대상화하는 이기적인 성문화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오늘날 부부의 이성애관계는 남성권력과 여성종속의 관계를 재생산하는 거점으로 파악된다. 나아가 이성애적 관계가 오늘날의 가부장적 핵가족의 유지기제로 기능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부 간의 이성애와 성(sexuality)에 있어서의 남성중심성과 지배성을 비판한다. 특히 성이 여성의 정체성 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므로 강압적이고 여성의 대상화에 기초한 이성애는 여성에게 자신의 육체의 자율권을 빼앗음으로써 그녀에게 무력감을 주거나 심지어 인간 이하의 경험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여성을 해방시키려면 이와 같은 이성애로부터 벗어나거나 이성애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근본이라고 본다.

2)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출산과 모성됨, 양성평등한 자녀키우기

여성주의 이론은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능력을 여성억압의 원천으로 인식하건 아니건 간에 상관 없이 공통적으로 여성의 해방을 출산에 대한 통제권의 회복에서 찾고 있다(문소정, 1995; 김규원, 1999). 또한 출산과 구별되는 어머니 역할, 즉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 역할이 역시 생물학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회결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분석과 주장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여성을 어머니 역할을 하는 존재로 재생산시키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부모공동양육(dual parenting)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어머니 역할이 여성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어머니 역할의 경험이 원래 여성에게 억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도적 모성이 어머니 역할의 경험을 억압적으로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과 자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출산능력과 여성이 자식과 맺는 감정적인 관계로서의 모성과 그 잠재력이 남성의 통제 하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제도화된 모성이 모성경험을 억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해방되려면 제도화된 모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결국 생물학적인 모성과 어머니 역할과 관련하여 여성주의 이론은 여성의 삶이 전적으로 출산이나 자녀양육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이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거나 일정한 피임과 낙태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머니가 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여 어머니가 될 권리로 모성자유를 부르짖는다. 구체적으로 몇 명의 자녀를 가질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뿐만 아니라 자녀를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도 역시 결정할 수 있거나 나아가 여성이 어머니 역할을 하지 않을 선택권도 가져야 한다는 재생산의 완전한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다.

3) 남녀간에 공평한 가사노동, 경제권 확보

가사노동의 주제는 1970년 내내 논쟁되었던 주제이다. 가사노동은 보편적으로 가족의 부양에 필요한 무보수노동으로 이해된다(이기영 외, 1993; 문소정, 1995). 사회주의나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에 의하면, 여성이 가정으로 들어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있는 가사노동을 하나의 경제적 범주로 파악하지 않고 이를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에 입각한 모성활동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가사노동은 바로 화폐경제권 밖에 위치하고 있지만 엄연히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활동이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노동이라는 것이다. 특히 근대 자본주의 아래 생산체제와 재생산체제가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가족이 더 이상 생산단위로 기능하지 않게 됨으로써 여성에게 가사노동의 전담화·집중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가사노동을 여성이 전담한 것이 역사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성의 천성에 맞는 모성활동의 연장으로 규정하여 여성의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여성에게 가사노동을 전담하도록 하거나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가사노동이 엄밀하게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정서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상 이를 어떻게 재조직화해 나갈 것인가에 많은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의 진정한 해방은 가사노동의 해방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성에게 경제적 무능력과 일상의 단순 반복적인 지루함을 가져다주는 가사노동은 여성에게 무차별적으로 강요되어서는 안 되고 최소한 여성의 선택사항이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가사노동 자체가 새로운 방법으로 재조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가사노동에서 가족원을 위한 질적 특성과 속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를 수용할 수 있을 때, 가사노동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가사노동의 사회화나 가족구성원간의 분담 및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온당하게 평가하여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제기되고 있다.

4) 남녀간에 공평한 주거공간 확보, 남녀가 함께 즐기는 식생활 문화 형성 및 남녀가 함께 공유하는 패션문화 창출을 지향하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가족과 일에서 양성평등의 획득,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출산과 모성됨, 양성평등한 자녀키우기, 남녀간에 공평한 가사노동, 경제권 확보남녀간에 공평한 주거공간 확보, 남녀가 함께 즐기는 식생활 문화 형성 및 남녀가 함께 공유하는 패션문화 창출을 통하여 양성평등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 참고문헌

교육부(2000).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비전 및 추진전략.

김재호(2000).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자의 현황과 과제. 한국여성경제학회 세미나 발표문.

김재호, 김승택(2001). 빈곤의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 : 패널데이터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김규원(1999). 여성과 사회 그리고 여성학. 우리사회연구학회 지음. 현대사회와 여성. 서울: 정림사.

김태현(2002). 여성주의 이론, 가족학 이론, 서울:교문사.

매일경제·McKinsey & Company(2000) <우먼코리아 보고서 : 프로젝트 1090>, 비전코리아 제5차 국민보고대회 발제문.

문소정(1995). 미국 페미니즘 가족이론과 한국의 가족과 여성. 여성연구, 6(1).

박충선·정영숙(1999). 여성학의 실제와 적용.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이기영 외(1994).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이박혜경(1999).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결혼과 가족. 한국여성연구소 새여성학강의. 서울: 동녘.

조은 편(1996). 정보화시대의 문화·여성. 나남출판.

진미석 외(2000). 학문분야별 고급인적자원 수급전망연구. 교육부.

통계청(1999).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1985-1999). 경제활동인구조사.

함인희, 한정자(2001). 여성의 가족과 일의 조화에 대한 국민체감의식 연구. 여성학 논집 제18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ILO(1999).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Kimball, G.(1993). *The 50-50 Marriage*, Boston: Bealom Press.

OECD(1997-1998). *Labour Force Statistics*.

United Nations(1993). *Partnership Famillies: Building the Smallest Democracy at the Heart of Society*, Occasional Papers Series, No.6.